

“음악적으로 더 다양해질 수 있었다”

4년8개월만에 새 앨범 '아이 엠 세븐'으로 가요계 컴백... 1인 기획사 설립 후 첫 발매

“혼자 하는 앨범이라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어요.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가수 세븐이 4년8개월 만인 지난 14일 새 앨범 '아이 엠 세븐'으로 가요계에 컴백했다. 군 복무 등으로 공백을 가진 그가 자신을 발굴한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1인 회사 '일레븐'을 차리고 처음 발매하는 앨범이다.

세븐은 13일 서울 동교동 일레븐인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지만 “부담을 안고 시작한 앨범이지만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총 7트랙이 실린 앨범으로 세븐은 지난 2008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전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아이 엠 세븐'이라는 앨범명을 강조하는 이유다.

타이틀곡 '기부 잇 루 미'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등과 작업한 프로듀싱팀 '스테레오 타입스'와 세븐이 공동 작사작곡했다. 리드미컬한 펑키 리듬과 단순한 메이저 코드의 조합이 경쾌하다. “그냥 노래도 춤도 신나게 즐기면 되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을 위해 국내외 작곡가에게 받은 곡은 100여곡 그 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골라 채웠다. 세븐은 “타이틀곡은 처음 하는 장르라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완벽한 프로듀싱 시스템을 자랑했던 YG

를 떠나 작업하니, 불편한 점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다.

“더 다양한 곡들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프로듀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자유롭고 발이 넓어졌죠.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오후에 방송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 컴백 무대 녹화를 오전에 진행한 세븐은 “그냥 너무 좋았다”고 즐거워했다. “말하자면 행복했죠. 감사했구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가수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일본 팬들도 응원해주셔서 작년 현지 투어도 가능했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뮤지컬 데뷔작인 ‘벨리자벳’의 ‘토드’ 역으로 복귀했다.

군 복무 시절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던 세븐은 “정말 힘들었던 때, 팬들의 편지 하나하나 소중했고 힘이 됐다”고 했다.

올해 데뷔 13년 차를 맞이한 세븐은 데뷔 즉시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8년 YG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아심차게 미국 진출을 시도했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예다.

“미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추억 등 많은 걸 남겨준 시간이었죠. 결과적



가수 세븐(32, 본명 최동욱)이 4년8개월 만인 지난 14일 새 앨범 '아이 엠 세븐'으로 가요계에 컴백했다.

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최동욱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몇십년 동안 해온 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이번 앨범은 음반차트 순위, 음원차트 순위에 연연해서

는 안 되는 음악이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덜해요.”

/뉴시스



전북체육회, 유소년전통스포츠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지난 14일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권역 유치원 16개소 유치원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유소년 전통스포츠 보급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잊혀져가는 전통스포츠를 유소년들에게 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택견, 줄다리기, 씨름, 민속종목에 대한 강습으로 유치원 원아들이 따라하며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비석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장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와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성장기의 유소년들에게 평소 즐겨하지 못했던 전통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사무처장은 “유소년들에게는 놀이문화 체험과 예법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전통스포츠와 민속놀이 체험 등 조상들의 지혜와 열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통스포츠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영화사상 전례 없는 화려한 시각

마블 스튜디오 새 히어로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

마블 스튜디오의 새 히어로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감독 스콧 데릭슨)가 지난 14일 오전 하이라이트 상영회를 통해 국내 최초 공개됐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공간을 조종하는 마법사 캐릭터가 주인공인만큼 이전의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시각 효과로 관객을 사로잡을 만한 작품이었다.

이날 공개된 30분 분량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전체 신경외과의사이자 훗날 영웅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스티븐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버치) 캐릭터의 일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그가 교통 사고를 당하는 장면, '에어스트 원'(틸다 스윈턴)의 가르침으로 마법 능력을 수련하는 장면, 지구를 파괴하려는 적과 맞서는 세 개의 화려한 액션 시퀀스로 이어졌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역시 세 번의 액션 시퀀스를 수놓은 강력한 시각효과였다. 마블 스튜디오와 스콧 데릭슨 감독은 지난 2010년 크리스토퍼 놀란이 '인셉션'에서 보여준 적 있는 '영상의 충격' 출력 뛰어넘는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이 영화에서 '게이트 웨이'를 통해 순식간에 공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부분에 속한 정도다. '닥터 스트레인지' 속 마법사들은 3차원을 넘어선 4, 5차원의 세계를 열어 시간과 공간을 뒤섞어 놓는다. 마치 도시 전체에 수십만 개의 거울을 달아놓은 것처럼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무시되고, 중력의 법칙도 중형으로 전환된다. 빌딩과 빌딩이 겹쳐지고, 도로와 도로가 뒤엉킬 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재구조하는 기술들이 난무한다.



숲과 바다와 산과 사막이 한 공간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날 하이라이트 상영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홍콩 거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되돌리는 시퀀스였다. 약 10여분 동안 진행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걸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역방향의 시간과 정방향의 시간이 한 데 뒤엉키는 모습과 함께 그 속에서 인물의 액션까지 펼쳐지며 영화사상 전례

없는 액션신을 보여준다. 최고의 연기과 배우들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작품이었다. '쉴룩'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버치는 물론 틸다 스윈턴·추이텔 예지오포·매즈 미켈슨·레이철 매캐덤스 등도 짝지듯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오는 25일 국내에서 전야 개봉할 예정이다.

/뉴시스

엄태웅, 성매매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씨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엄씨를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성은 업주와 짜고 엄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녀 A(35·여)씨와 마사지업소 업주 B(35)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 의결로 검찰로 넘겨졌다. 엄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그러나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씨는 B씨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여주, 의정부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6곳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22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